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야쿠스기 삼나무

야쿠시마 섬의 상징적인 삼나무인 야쿠스기 삼나무가 일본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은, 16 세기 후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가 이 섬에 좋은 삼나무가 있음을 알고 교토 사찰의 본당 건설에 사용하기를 명한 게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데요시가 야쿠스기 삼나무에 주목하다

오랜 내전 끝에 16 세기 후반에 히데요시는 자신의 지배하에 일본을 통일했습니다. 1586 년 4 월, 히데요시는 교토 호코지 절 대불전 건설에 쓸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물색하라고 명했습니다. 당시 규슈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마즈 집안은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87 년에 히데요시가 시마즈 씨를 무찔렀고, 당주인 시마즈 요시히사(1533~1611)는 야쿠스기 삼나무를 공물로 보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히데요시는 측근이었던 이시다 미쓰나리(1560~1600)에게 요청하여 사쓰마가 본거지인 고위 가신 이주인 다다무네(1599 년 사망)와 시마즈 다다나가(1551~1610)가 야쿠시마 섬에 가서 목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섬 주민의 안내에 따라 여러 그루의 나무를 조사했는데, 야쿠스기 삼나무의 질이 좋고, 마디가 아름답고, 내구성이 있어서 건축 자재로서 적합한 목재임을 알았습니다.

이 조사는 1595 년에 시마즈 요시히사와 남동생인 요시히로(1535~1619)가 발표한 포고에 언급되어 있는데, ‘대불전을 위한 목재 조사에서 기록된 나무는 그대로 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를 운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명한 야쿠스기 삼나무가 최종적으로 교토에 도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592 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에 시마즈 집안도 나갔기 때문에 야쿠시마 섬에서 목재를 운반할 배가 부족하고, 또한 경제력도 판자나 기둥으로 사용하는 가공 목재를 교토로 보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월슨카부 그루터기

대불전 공사를 위해 벌채된 야쿠스기 삼나무 가운데 한 그루는 1914 년에 그 그루터기를 발견해 세계에 소개한, 영국의 진귀한 식물 채집가이자 식물학자인 어니스트 헨리 월슨(1876~1930)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지어진 월슨카부 그루터기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917 년에 월슨과 만난 일본의 식물학자 다시로 젠타로(1872~1947)는 1918 년에서 1923 년 사이에 첫 조사를 위해 야쿠시마 섬을 방문하여, 1926 년의 보고서에 이 그루터기의 재생 상태는 이 나무가 18 세기 초엽에 벌채되었음을 시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야쿠시마 국립공원의 특별보호구역 내에 있는 오카부 보도를 따라 해발 1,030m 지점에 있습니다. 벌채되기 전의 나무는 수령 2,000 년을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의 직경은 4m 를 넘습니다. 나무 안쪽의 커다란 동굴에는 샘이 있고, 산신인 히코호호데미노미코토, 나무의 신인 구쿠노치노카미, 산과 바다의 신인 오야마쓰미노미코토를 모시는 고다마 신사가 있습니다. 미야노우라의 시사이드 호텔 부지 내에는 윌슨카부 그루터기의 복제품이 있어서 방문객이 실제 그루터기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